

社會의 病的 現象 (一)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張兄! 李灌鎔氏를 紹介합니다. 언제 한번 잠간 말씀하엿섯지요. 同氏는 우리 朝鮮에서 매우 보기 드문 洋學者올시다. 또 兼해서 漢學에도 相當한 素養이 있습니다. 同氏는 우리 朝鮮 歐洲留學生의 第二 成果올시다. 第一位는 金衆世氏가 占領하겠습시다. 하나 兩氏가 各其 特色이 다 있습니다. 金氏의 靜的임에 反해서 李氏는 動的이올시다. 金氏의 얼마쯤 尙古的임에 反해서 李氏는 넘우도 急進的이라 하겠습시다. 金氏의 純學者的임에 反해서 李氏의 政治的 熱血을 到底히 看過치 못하겠습시다. 李灌鎔氏는 京城 高等普通學校, 東京 府立第四中學을 지내서 京城 專修學校를 卒業하고, 九年 前에 歐洲에 와서 英, 佛, 獨, 瑞西國에서 卽今까지 豐饒한 天資를 더욱 琢磨하엿습시다. 瑞西 추리히[취리히, 쥐리히]大學에서 哲學博士의 學位를 어덧습시다. 英獨 兩國語는 그의 特長이오, 또 佛語에 能하고 兼하여 日語에 精通합니다. 同氏가 우리 東亞日報紙를 爲해서 『社會의 病的 現象』이라는 論文을 起草하엿습시다. 同氏는 故國을 쟈나서 歐洲에 滯留한지 近十年이기 때문에 故國 事情에 或 精通치 못한 點도 잇겿고, 또는 우리 言語 文章에 語塞한 點이 全然이 없슬이라고는 保證하기 어렵습시다. 하나 그의 豐富한 蘊蓄 中에서 犀利한 頭腦를經過해서 쓰다져 나온 論文 中에는 반드시 注意할 만한 點이 만히 잇슬 줄 압니다.

張兄! 李灌鎔氏의 論文을 보시고 될 수 잇스면 速히 紙上에 發表하여 多年間 外國에 게시던 同氏에게 우리 同胞와 接觸할 機會를 提供해들이기 바 라나이다.

七月 二十一日 金俊淵

張德秀 仁兄



此는 우리 德國 留學生 諸學友에게 講演한 것이며 또한 一部分은 瑞西國 쭈리히[취리히, 쭈리히]市 『너이에[노이에], 쭈어르혀[쭈리헤], 짜이퉁[짜이퉁]』이라는 新聞에 掲載되얏섯는데, 該紙의 寬大한 承諾을 因하여 우리 東亞 日報에는 그 草案 全部를 掲載하게 되얏나이다. 科學的 研究가 아닌 一時話로 預期하시기를 讀者 諸位에게 請하나이다. 그러나 此論 中에 重大한 問題도 包含된 것이 多有하니, 此에 對하여 熱誠의 討論이 有하기를 筆者는 懇切히 希望하나이다.

朝鮮人の 歐洲 留學에 對하여

여러분 眞正히 반갑습니다. 歐羅巴에서 이럿케 여러분 同胞를 만나 倍일 줄은 豫期치 못하얏습니다. 七八年 前에 英國서 放學이 되면 張澤相君은 『에딘버러[에딘버러]』에서 閔奎植君은 『캠브릿지[캠브리지]』에서 이 사람은 『엑스포어드[옥스퍼드]』에서 倫敦에서 서로 만나면 親兄弟를 만난 듯이 그리 반갑겠삽닛가! 오늘날도 또 한번 이럿케 반갑습니다. 그쎄 우리는 矜각하기를 歐洲에 적어도 二十名 留學生만 잇섯드면 滋味가 조금 잇슬가 하고, 이러한 大幸福은 敢히 바라지도 못 하얏습니다. 그런데 只今 이처럼 實現되얏습니다. 英國, 法國, 德國, 伊國, 露國 어대 업는 대가 업습니다. 德國 內에서는 伯林, 『에나』, 『쇠팅겐[괴팅겐]』, 『뷰오쓰부역』, 『뮌헨[뮌헨]』, 『푸라이부역[프라이부르크]』 다 各々 著名한 大學에서 經濟, 法律, 哲學, 物理, 化學, 醫學, 音樂, 陸軍, 機械學 等の 多方面으로 研究를 해서 將來에 完全한 共生組織이 成立되겡습니다. 여러분은 歐洲文化를 그 根源地에서 研究하시고 우리 國民의게 紹介코자 하시는 先鋒이시며, 아리 朝鮮 開國 四千五百年 以來에 그 中 新責任으로 新生活을 하실 開路者들이심을 다시 한번 記憶함세다. 爲先 여러분이 이 德國이란 데 계신 것이 有史 以來로 처음 되는 일이지오. 여러분의 生活은 一動一靜 何方面을 보든지 有史 以來에 처음입니다. 汽車를 타고 어느 山을 넘어 어느 江을 굽네든지, 어느 大學 어느 講堂에 드러가든지 어느 市街에서 어느 美術館을 訪觀하든지, 하다못해 어느 街路 어느 料理店에서 食事 한번 하야도 여러분은 다 有史 以來에 처음 되난 生活이십니다. 有史 以來라면 우리 國民의 歷史만 말하는 것이 안 임내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럿케 理想的 生活하심은 人類 歷史가 始作된 後에 一大 變更입니다. 여러분 卒業後 歸國하야 더욱 重要하고 더욱 神奇한 生活을 하심을 因하여, 人類의 有史 以來로 初有한 大事件을 맨드시지 못한다고 웃더한 預言者가 敢히 開口하겠습니가? 直接으로 우리 朝鮮 國民을 爲하야 活動함은 間接으로 全

人類를 爲하여 活動함인 줄 암내다. 그런데 機會가 좃코 活動舞臺가 準備되
얏습니다. 다만 勇敢한 人格이 그 責任을 負擔함이 아직입니다. 成功은 活動
果實입니다. 할 事業 만코 責任 만허 活動 그것이 滋味잇서요. 우리가 그 實
果 맛 못보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幸福을 享樂하겠지요. 그러나 우
리의 趣味는 活動 그것에 잇습니다. 萬一 事業이 업섯드면 우리가 웃덧케 生
活할번 하얏습닛가! 生活이 空虛한 生産 업는 機械的 動作이 되얏겠지요. 그
러나 할 일이 웃지 만코 豊富한지 우리 朝鮮 國民 갓흔 有福國이 어데 잇습
니가! 그러면 여러분의 生活을 누가 부러워 안 하겠습니가! 留學時期가 最適
합니다. 平和가 아모리 조화도 人類의 精神을 睡眠식힐 재가 잇스며, 아모리
困難하야도 우리 人類의 發展은 亂時에 成就되야 平時에는 그 實果를 享樂
함이 一般 傾向입니다.

個人 々格의 發展도 그 苦難을 當하난 時期에 成就됩니다. 前無하든 이
亂時에 人類 社會生活 上 有史 以來 처음으로 經驗되는 大事件이 每日 不絕
하는 이 中心地에서 學理와 實際 經驗으로 우리 人類 社會生活의 發展徑路
를 直接으로 研究하실 여러분은 眞實로 부럽습니다. 오날도 우리 現代社會의
亂時 生活을 研究하야봅시다. 이 사람은 社會學을 研究하야 본 일이 업습니
다. 다만 見聞한 것은 이리저리 쫓어 마춰여 우리가 生活하는 時代의 一般傾
向을 우리 意識的으로 觀察코자 함이 이 講演의 目的입니다.